의학 학술지 평가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서 정 욱

대한 의학학술지 편집인협의회

우리나라에서 발행되는 의학잡지의 종류나 페이지 수를 보면 의학정보 산업이 선진국 수준이라고 할 수 있으나 그 이용가치나 외국에서 인정하는 정도는 후진성을 면치 못하고 있다. 실제 임상의학 진료수준이나 의학연구에서는 상당한 발전을 보이면서도 의학 논문으로 평가되는 의학잡지는 크게 뒤진 것은 의학 정보산업의 후진성에 원인이 있다고 볼 수 있다. 현재 발행되는 각종 의학 학술지는 다양한 수준으로 발간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 것은 좋은 쪽을 보면 좋게, 나쁜 예만을 든다면 나쁘게 평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학술지 수준의 다양성은 학문의 다양성을 표시하는 것이 아니라 정리되지 않고 다듬어지지 않은, 수준 이하의 학술지를 의미하는 것이어서 시급히 해결해야할 과제인 것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나라 학술지 개선을 토의하는 모임이 생긴 것은 1989년 2월 대한의학회 주최 "국내 의학학술지 발전을 위한 워크샵"이 시초라고 할 수 있다. 1992년 10월에 제2차 워크샵이 있었고 그 후 의학학술지 편집인 협의회가 논의되다가 무산되었다. 그 후 서울의대 의학교육연수원 또는 각 학회 등을 중심으로 여러가지 활동이 있었으며 1996년 2월 22일 "대한의학학술지 편집인협의회"가 정식 발족되었다.

1998년 6월 현재 113개 단체(의학회 및 의학회 정회원단체 44, 준회원 단체 43, 의과대학 및 연구소 19, 기타 7)가 가입하여 활동하고 있다.

※ 이 특강은 1998년 11월 13일 제 37 차 대한핵의학회 추계학술대회에서 발표하였음.

우리나라 의학학술지 평가

대한의학학술지 편집인협의회는 3개 위원회로 구성되는데 기획평가위원회는 학술지에 대한 평가를 주임무로 조직되었다. 1996년 9월 16일 "의학학술지 평가 기준"을 완성하였으며 그 실행 방안으로 학술지 현황조사와 학술지 평가를 기획 추진하였다.

학술지 현황조사는 1996년 10월 현황조사를 위한 설문지를 작성하여 1997년 10월말까지 70개 의학 학술지에 대한 조사를 마쳤다.

국내 의학학술지 평가에 앞서 시범평가 실행안(1997년 8월 18일: 3항목 26 세부항목)을 작성하였고 1997년 8월 27일 6개 학술지를 대상으로한 시범평가가 시행되었다. 시범평가를 근거로 "국내 의학학술지 평가 항목 및 세부 평가 항목(3 항목 33 세부항목)"이 1997년 9월 23일 작성되어 3차례 본 평가가 실시되었다. 3차례의 본 평가는 각각 17, 9, 11개 학술지를 대상으로 하였고 그 중 6개 학술지가 부적합 판정을 받았으며 제4차 평가는 12개 학술지를 대상으로 11월 4일 실시될 예정이다.

학술진흥재단에서는 별도로 학술지 평가를 시행하고 있다.

의학 학술지 평가의 기준

의학 학술지가 질적으로 우수한가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은 그 학술지에 게재된 글 자체가 우수한 것이냐에 달렸다. 그러나 어느 논문이 우수한 것이냐를 판단하기는 거의 불가능에 가까울 정도로 어려우며 이를 객관화하는 작업 또한 어렵다. 학술지의 우수성에 대한 다른 측면의 평가는 독자의 반응에 대한 평가이다. 독자 중에서도 학술적으로 우

수한 집단의 평가를 학술지 평가의 기준으로 삼는 것이다. 학술적으로 우수한 집단은 논문을 실제 쓰는 사람을 의미하며, 학술지의 경우 독자가 바로 저자가 된다는 점에서 착안한 신기한 평가방법인 것이다. 미국 필라델피아 ISI (Institute for Scientific Information)에서 간행하는 Science Citation Index는 이런 측면에서 데이터베이스를 만든 것이며 전세계적으로 응용하고 있다. 우리나라 의학 학술지의 경우도 SCI 계산 방법을 응용하여 수치화하는 방식으로 하고 있다. SCI 만큼 중요하지는 않지만 Medline 등 국내외 색인기관에 인용되는 현황도 평가 척도로 이용되고 있다. 국내 도서관에 비치되는 현황과 해당 학술지의 논문에서 인용되는 현황도 실제 활용되는 척도로 볼 수 있으며 활용하기 위해서는 도서관 비치가 필수적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실물조사가 중요한 항목으로 이용되고 있다.

학술지에 대한 다른 평가는 발행 상황에 대한 평가이다. 학술지의 발간이 정기적인지 부정기적인지를 점검하고 점수화한다. 발행일자의 준수 여부는 정기간행물로서 제일 조건이므로 이를 평가의 기준으로 한다. 편집인에 대한 평가도 중요하다. 학술지의 편집을 자격있는 학자에게 일정기간 위임하여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었는지의 여부를 자료를 기준으로 평가한다. 이 사항은 학술지로서 발전하는데에 가장 기본적인 발행기관의 태도를 반영한다.

편집위원회를 구성하지 않고 발행하는 학술지는 없겠지만 이 위원회가 실제로 작동하여 학술지 운영에 대한 기본 방침 등을 토의하고 결정한 실적을 제출받아 조사한다. 편집위원회에서 정한 투고규정은 발행인과 편집위원회의 활동을 반영하는 것이며 이에 대한 평가와 이행여부는 중요한 기준이된다. 제출논문에 대한 심의제도의 운영상황을 평가하고 점수화한다. 평가 결과로 나타난 배척율은 저자의 호응 정도를 평가하는 기준이 된다.

발행된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 중 무작위 추출한 일정 비율의 논문을 대상으로 1) 논문제목의 오자, 2) 저자 및 소속의 오자, 3) 큰제목의 오자 4) 표와 그림의 오자, 5) 결론 또는 요약의 오자, 6) 영문초록의 오자, 7) 인용논문 한쪽에서의 오자, 8) 무작위로 택한 한 쪽(page)에서 발견된 오자, 표지, 속표지, 차례, 편집 규정의 오자 등의 빈도를 조사한 자료를 만들고 이를 자료화하여 점수화한다.

무작위로 추출한 논문을 대상으로 논문의 사진과 line drawing이 원본인지 여부(저자 등이 직접 만든 것인지, 인용된 것이면 인용한 사실을 기록하였는지)와 그 크기의 적절성 및 선명도 등을 평가하여 점수화한다.

무작위로 추출한 논문을 대상으로 논문의 내용을 읽기 좋고 타당성 있게 lay-out이 작성되었는지를 1) 사진과 도표 크기의 적절성, 2) 사진과 도표의 위치, 3) lay-out의 예술성 등을 평가하고 점수화한다.

의학 학술지 평가의 실행 현황

평가 위원회는 자체평가항목 평가위원과 실물평가항목 평가위원 그리고 협의회 조사항목 평가위원으로 구성된다. 자체평가항목 평가위원은 평가대상 학술지 편집인 또는 간사가 담당하고 실물평가항목 평가위원은 대한의학학술지 편집인협의회 임원을 중심으로 구성하며 협의회 조사항목 평가위원은 숙명여대 문헌정보학과 이춘실교수가 담당하고 있다.

자체평가항목에 대한 평가는 해당 학술지 담당자가 14개의 세부항목에 대한 학술지 운영자의 입장을 정리해서 평가 당일 발표하고 실물평가항목에 대한 평가는 평가위원이 사전에 학술지의 내용을 검토하여 당일 발표하는 방식으로, 협의회 조사항목은 평가위원이 전산자료 분석을 통하여 집계한 자료를 제시함으로써 당일 평가가 진행된다.

평가 결과는 5점 만점으로 한 절대 평가 점수를 3명의 평가위원의 점수 집계로 운영하고 3개 항목별 점수의 평점이 2.5 이상인 학술지를 Korea Medline 등재를 위한 평가의 합격으로 하고 있다.

평가의 일관성, 독립성, 객관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결과의 활용에 대하여 본 평가위원회가 간여하지 않고 있다. 즉, 본 협의회에서는 평가를 하여 그 결과를 자료로 제시할 뿐이고 이 결과를 활용하는 것은 활용 목적에 따라 별도의 판정 기준을 정하도록 하고 있다. Korea Medline과의 관계도 이런 맥락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Korea Medline이 본 협의회

정보관리 위원회에서 주관하기는 하나 Korea Medline에 올리는 잡지를 선정하는 기준은 평가위원회가 정하는 것이 아니라 Korea Medline 운영위원회에서 정하도록 하고 있다.

학회지에 대한 평가는 6년마다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연차별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학술지 현황조사와 병행할 예정이다.

결 론

평가는 앞으로의 계획에 대한 예측기능이 아니라 과거의 실행 내용에 대한 평가이어야 하는데 이 부분이 잘 이행되지 않고 있다. 예를 들어 어느 학술지가 평가에서 나쁜 점수를 받았으면 이에 대한 수정을 하고 새로운 체제가 정립되어 개선의 효과가 나타난 후에 재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나 실제는 투고규정 등을 보완하고 즉시 재평가를 요구하고 있고 이들 요구에 대하여 거부하지 못하고 있다. 이는 평가를 학술지 개선의 계기로 삼기보다 자신의 업무를 평가받는 것으로 오해하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이러한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평가에 참여한 학술지 담당자들이 대개는 자신의 학술지에 관심을 가진 데 대한 감사의 뜻을 나타내고 학술지의 개선을 위한 여러 가지 움직임이 실제로 나타나는 등 좋은 반응이 나타나고 있다고 생각한다.

학술지의 목적을 자신의 업적을 정리하는 자서전이나 몇 명의 저자들이 돈을 모아 인쇄하고 나누어 보는 동인지로 생각하는 것은 잘못이다. 학술지는 독자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독자의 평가를 받아야 존재의 가치가 있다. 많은 편집인들이 "Medline에 등재되기만 하면 잡지가 좋아질 것이다"라고 생각하는데 이 역시 잘못된 생각이다. Medline에 등재되면 좋은 논문이 들어와 인쇄하는데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는 예측은 가능하지만 이는 학술지를 인쇄해야하는 일거리로 생각하는 사람의 생각이다. Medline 등재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 학술지의 독자가 만족하고 있는가," "우리 학술지를 읽고 있는가"의 문제이다. 어렵고 세계적인 첨단의학을 게재하는 것이 학술지의 목적이 아니라 우리 독자에게 읽히는 학술지가 되고 있는가를 생각해야 하고, 읽히는 학술지가 되면 내용도 개선되고 좋은 학술지로서의 전통이 다져져야 외국 색인기관에서도 등재할 필요성을 인정하게 되는 것이다.